

작품 내용

제 목	웃음과 행복에는 저작권이 없다
내 용	“야! 이거 내 저작권이야!” 컴퓨터 시간이면 우리 반 친구들이 자신의 코딩 작품에 대해 매번 이렇게 말한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나도 지난주 새소식 발표를 저작권에 대해 준비했다. 덕분에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보호기간 등 잘 알지 못했던 이런저런 것까지 알게 되었다. 저작권을 정확히 몰랐을 때에는 《저작권=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글이나 음악, 그림, 춤, 사진과 같은 창작 작품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누군가가 만든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행동이다. 우리 반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친구는 코딩 작품도 잘 만드는데, 자기가 코딩으로 만든 노래를 누군가 마음대로 써서 신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일들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득 ‘혹시 나는 새소식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적은 없었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가끔 공모전에 시나 에세이, 독후감을 출품한다. 하루는 초록 창에 ‘운현초 000’를 검색해보았더니,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글이라며 내가 쓴 글이 실린 사이트가 열렸다. 내 글이 인터넷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누군가 마음대로 내 글을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동요 부르기를 좋아해서 해마다 종로동요축제에 나가고 있다. 내가 노래하는 영상을 동요축제 담당자분이 보내주셔서 엄마가 개인 채널에 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곧바로 ‘저작권침해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영상을 삭제했다. 악보와 반주음원을 정당하게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사진 찍을 때 꼭 친구들에게 “애들아, 너희들 노는 모습 사진 찍어서 엄마들께 보내도 되니?” 하고 물어보신다. 아! 그건 저작권이 아니라 초상권인가? 정확히는 다른 것이지만, 둘 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인 건 분명하다. 가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 저작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저작권에 대해 알아가면서 앞으로 나 자신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주변에 공유하지 않기! 두 번째,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기!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는 것이다. 내 꿈은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선물하고 또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가사로 좋은 노래를 만들어도 난 유명하지만 가난한 작사가가 될지도 모른다. 내 꿈을 이루기 위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웃음이 나 행복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다행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걱정 없이 얼마 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
--	--